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21



달밤의 두마리의 새 그림: 박향옥(Olivia Park)

CONTENTS

| | |
|--|-----------------------------------|
| 한인회장 인사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2 | 칼럼 39주년..예배에 초대합니다 김기천 : 14 |
| 한인회소식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행사: 3 | 칼럼 마라스무스 병 나정용 : 15 |
| 한국학교 한국학교 교장인사 이수신: 4 | 지역소식 이재호 교우 고별인사 :16 |
| 한인사회소식 KOWIN 여름캠프 마침 박광종: 5 | 수필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정길 : 17 |
| 지역소식 'Little Brother'영화촬영/우주여행 시작: 7 | 아동교육언어 수학개념발달에 영항 계영희: 19 |
| 지역소식 알버커키 살인사건 통계: 8 | 수필 호렘으로 가는 길 나정자 : 21 |
| 올림픽소식 도쿄 올림픽과 마라톤: 9 | 영어상식 영어이야기 (16) 이상목 : 23 |
| 신간서적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진세희 : 10 | 선교 아프가니스탄 선교 간증 조성현 : 25 |
| COVER STORY 화가 박향옥 집사와 인터뷰: 11 | 지역소식 CVI Laser 한유학 박사 이경화 :27 |
| 한인사회소식 한국의 교회음악/박재훈 별세: 12 | 광고 뉴멕시코 한인교회 안내 : 29 |
| 한인사회소식 부고 유정남 권사 : 13 | 광고 뉴멕시코 한인업소 : 30-32 |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찌는듯한 더위가 어느덧 가시고 새벽녘에는 서늘한 초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각자의 맡은 직책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민 여러분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인회의 지난 소식을 편지, 이메일, 한인회 웹사이트, 그리고 광야의 소리로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한인회의 지난 두달간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인회에서는 7월 24일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정회원의 1/3이 참석하셔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시총회는 잘 마쳤습니다. 정관 개정안은 정관에 수록하여 영문 번역하고 공증받아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총 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담당영사로 부터 12,600불을 받았습니다. 회장단과 회계는 8월 28일에 만나 그동안 한인회에서 대출하여 썼던 금액을 갚았고 재정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8월11일 수요일에는 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만세 삼창과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조국애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월 8일 어버이회 모임에 6.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식사후원을 이명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하십니다. 참전용사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아지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한인회에서 더 자주 모실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어버이회는 현금으로 조영희 200불, 송춘자 100불, 최영애 100불, 강은선 100불을 후원하셨습니다.

음식으로 갈리리 장로교회, 김태원,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윤진옥, 윤태자, 이명길 목사님, 조영희, 코인에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어버이회는 조은순 회장님과 신승금 부회장님이 수고하고 계시며 시간이 되는데로 한인회 임원진과 감리교회 신혜숙씨가 음식 준비를 하고 뒷정리를 하시며 어버이회를 돕고 있습니다.

한인회에 위점덕 이사님이 일회용품을 후원해 주고 계시며 최미나씨가 5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준씨 가정과 김창석씨 가정에서 물품을 후원해 주셨고 김베로니카씨께서는 연습용 가야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Noon & Associates LLC의 Owner이신 Joaquin Noon 씨가 한국학교에서 쓸 책상 9개와 컴퓨터용 의자 4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8월 27일부터 한국학교 가을학기가 개강 되었습니다. 2003년에 각교회에서 하던 한글학교가 통합되어 한인회 부속기간으로 한국학교가 된지도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직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서 봉사와 헌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네교실을 새로 만들고 새 책상과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새 교장 선생님과 새로운 교사진이 고전분투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였고 적은 인원의 교사와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경험과 시간을 내실수 있는분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한글을 가르치는데 나서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한인회를 이끌어 오면서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 교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분의 미국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한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통하여 역사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도 한인회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서로 도와주어야 뉴멕시코 한인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한인회가 잘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19대 한인회장 윤태자 올림

뉴멕시코한인회 소식

사진으로 보는 한인회 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8.11.2021)



임시총회에서 바이얼린 연주: 이예원



광복절 기념행사 (8.11.2021)



임시 총회 (7.24.2021)



임시총회에서 고전무용: 이희정 사회:이지수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장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교민 및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대지를 금방이라도 불태울 것 같은 그 강렬한 태양의 열기도 각 학교의 가을학기 개강과 더불어 서서히 세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듯 합니다.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는 6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새롭게 단장한 깨끗하고 아담한 교실에서 8월 28일 토요일에 첫 가을학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아반, 초등1반, 초등2반, 중고등 1반, 중고등2반 등의 5개 학급의 아동반이 편성되었고 성인반은 초급, 중급, 고급 3반으로 총 8반의 학급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학기에 우리 아동반은 특별활동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무용인 꼭두각시, 소고, 전통탈춤을 수업에 편성하여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무용을 통한 전통문화를 체험할수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분의 선생님과 네명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보조교사로 헌신하고 있으며 열정적인 학부모님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한글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유행병이 사라지지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글학습에 배고픈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뜨거운 학습열기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적절한 환기등을 통해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학기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한글학습에 관한 높은 관심과 대단한 열정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재정 형편과 교사진의 인프라 부족으로 우리 한글학습에 관한 학업성취 욕구와 관심에 100% 부응하지 못할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린이들이 한글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모든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긋지긋한 대유행병이 마치 거의 1세기전쯤 발병하여 약 5억명의 감염자와 약 5천만여명의 희생자를 만들었던 공포의 스페인 독감이 마치 봄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COVID-19도 하루아침에 우리 곁에서 사라져 하루빨리 제한받지 않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수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실 분은 한인회나 한국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장 이수신



사진:한국학교 선생님들
왼쪽부터: 이수신 교장, 이호석, 한지은, 배현희, 강민경 선생님



A-1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뉴멕시코 KOWIN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코윈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과정에서 아프리카인 속담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가 실감이 났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그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코윈 캠프는 부모님들의 참여와 도움이 아니었으면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행사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지역사회행사에 기꺼이 교회를 내어주신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김기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도 자기들 아이들마냥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긍정적으로 격려도 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김밥만들기, 꽃송편만들기, 색깔만두 만들기에는 어머님들이 같이 준비해주시고 아이들옆에서 고사리손으로 만드는 아이들을 지그시 웃음으로 격려해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민화를 연, 책갈피, 손거울, 족자에 그리고 색칠하는 과정하나에 어머님들의 노고가 크셨습니다. 엄청난 김밥재료 준비와 손이 많이 가는 만두속 만들기, 꽃송편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색의 떡반죽하기, 코비드 때문에 신경쓸게 많음에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어느 한분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일해주셨습니다.

캠프 첫날은 코윈캠프 민화주제인만큼 호작도로 디자인한 단체 티셔츠로 갈아 입고 방과후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김밥만들기. 옆구리 터진 김밥, 험하고 단무지만 들어간 김밥, 조그만 입에는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큰 꼬마김밥, 각지각색 자기 취향에 따라



박광종
뉴멕시코 코윈 지부장
하이랜드대학교수



알버커키경찰의 세미나를 마치고

재료를 선택하고 김밥도 말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항상 엄마가 말아주신 김밥을 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심각하고 신중하게 재료를 결정해서 조심스레 김밥을 마는 모습들이 너무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김밥만들기가 끝나고 알버커키 경찰 Ambassador Program을 담당하는 Sergeant Gerald Shelden 과 911/Dispatch Communications Operator, Anna Lam이 증오범죄와 Bully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아시안으로 겪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시안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시안이라고 놀리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경화장로님의 아버님이신 이원수님의 고향의 봄으로 시작한 둘째 날의 캠프는 아이들이 민화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알고 그 민화를 연과 책갈피, 손거울, 족자에 그려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때 불렀던 노래, 일제시대때 잃었던 조국의 봄을 그리워서 불렀던 노래, 여전히 고향의 봄을 부르며 두고 온 조국과 가족이 그리워 가슴뭉클한 노래. 조금이나마 그 느낌을 이해하고 부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젠가 엄마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어디에선가 코윈캠프에서 들어본 익숙한 소절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불러보았습니다. 민화를 아이들이 과연 그 조그만 거울과 책갈피에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이들의 조그만 손으로 그려가는 자기만의 민화를 보면서 금방 사라졌고 아이들의 재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손거울에 민화를 그리고 엄마들에게 선물하겠다고 달려가는 아이들, 효도가 뭔지 벌써 아는 기특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투호 던지기, 팽이 돌리기, 제기 차기, 실뜨기, 바둑/오목 두기. 고사리손으로 엄마랑 아빠랑 실뜨기도 해보고, 수빈, 수민이 어머니님 손수 보여주시는 팽이 돌리기 실력도 보고,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제기도 차고, 더운데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의 연을 같이 날려주고 연날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코윈행사를 하면서 여러모로 도와 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윈 행사 하나하나가 좋은 계기가 되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Village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Little Brother' 영화 촬영시작

지난 8월 8일 일요일 Albuquerque Journal 신문의 Life in New Mexico부분 기사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찾다’(Finding Light in the Darkness)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사 미술편집인 Adrian Gomez가 쓴 기사의 첫 문장은,

‘Sheridan O’Donnell은 다가오는 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제작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자부심의 표시입니다.’ 라고 씁니다. 이어서

‘셰리던 오도넬(Sheridan O’Donnell)이 그의 첫 장편 영화인 “리틀 브라더(Little Brother)” 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Donnell은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유전 질환인 색소성 망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받아드리기 어려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영화제작의 첫 시작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시작했다는 제보를 광야의 소리 편집부로 김명주씨가 해주셨습니다.



‘저의 셋째 아들 Patrick Sheridan O’Donnell 입니다. 세째가 내일 8월15일부터 영화촬영에 들어갑니다. 제 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촬영시작을 기해 스무명 남짓 촬영진들이 의식을 갖겠다며 에미에게 조언을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 video clip을 들으면서 함께 어린 무궁화꽃 나무 한구루를 심는 의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명주씨는 세째 아드님내외를 돕기위해 LA에 가 계시며 며느리 역시 영화계에서 활약하느라고 바쁜가운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버커키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TV 드라마 “Breaking Bad”의 후편드라마 “Better Call Saul”에 며느리가 프로듀서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가로 촬영을 시작한 아드님의 영화 “Little Brother”와 며느리의 영화 “Better Call Saul” 모두 성공적인 영화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주여행의 시작이 뉴멕시코에서

뉴멕시코에서는 7월11일 일요일 리처드 브랜슨 경이 자신의 여객선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을 타고 T or C에 있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이륙하여 54마일 상공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하면서 새로운 우주여행의 역사를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선 VMS 이브에 부착되어 있는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는 오전 8시 40분쯤 우주공항에서 브랜슨과 조종사 2명, 승무원 3명이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약 45분 후, 로켓은 이브로부터 떨어져 나와 모터를 작동시키고 우주로 발사되어 약 282,000피트 고도, 거의 54마일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성공한 우주여행

7월 19일에 역사상 두번째 민간 우주여행의 성공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프 베조스(Jeff Bezos)의 우주 회사인 Blue Origin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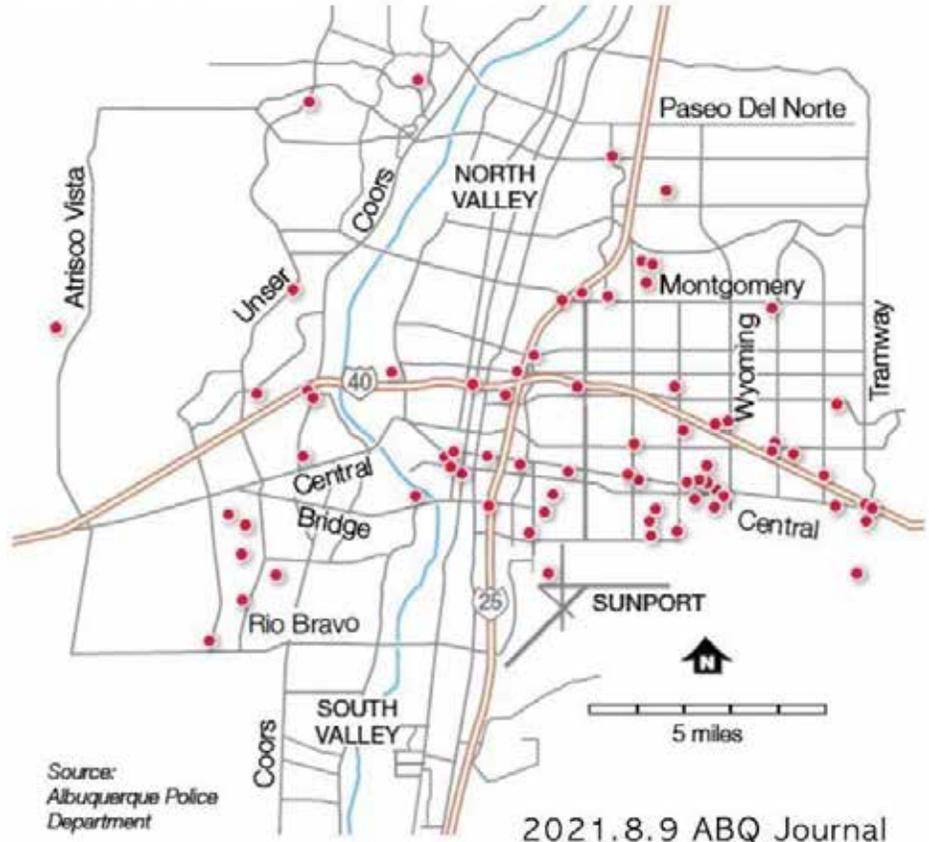
지역사회 소식

금년에 일어난 알버커키 살인사건 통계

지난 8월 9일자 알버커키 저널 신문기사에 의하면 알버커키 경찰국은 2021년 상반기에 8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의 상반기 통계의 44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타 도시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시티에서는 올해 5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이맘때 35건에서 크게 늘었고 애리조나 투산에서는 올해 5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이맘때 34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경찰국 APD 대변인 Gallegos는 올해 살인 사건의 약 20%(80건 중 16건)가 호텔에서 발생했으며 많은 사건들은 가정 폭력 및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APD 경찰국은 폭력 범죄 또는 재산 범죄의 다른 범주에 대한 2021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변인 Gallegos는 그가 본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강간과 강도는 감소한 반면 부상을 입은 총격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에

ALBUQUERQUE HOMICIDES, 2021



총격 사건이 극적으로 급증했지만 그 이후 속도가 느려졌다고 말했다. 경찰국에서는 알버커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을 표시한 지도를 통계자료로 공개했다.

텍사스에서 성공한 우주여행 (7페이지에서 계속)

우주 비행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텍사스 El Paso 남동쪽에 있는 Van Horn 발사장에서 7월 19일 아침 제프 베조스는 최초의 유인 New Shepard 로켓을, 역사상 가장 연로자, 연소자 그리고 그의 동생과 함께 타고 우주 비행 역사를 개막했습니다. Blue Origin 승무원을 태운 로켓은 음속의 3배 이상으로 가속되어 캡슐은 80km(262,000피트)에 도달하여 몇 분 동안 미세 중력에 떠있었으며 캡슐은 3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안착했습니다. 10분 10초의 비행이었습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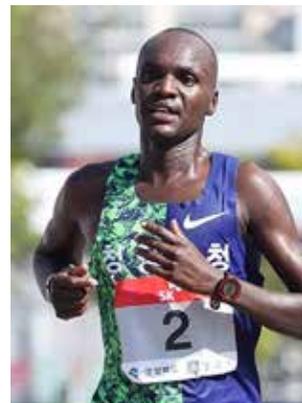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올림픽 소식

도쿄 하계 올림픽과 마라톤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 개막하여 8월 8일 막을 내렸다. 32회 하계 올림픽대회는 원래 2020년 7월 24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 시기를 1년 미뤄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대회 공식 명칭은 변경하지 않고 “2020 도쿄 올림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8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올림픽 육상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는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37)가 2시간08분 38초에 달려서 올림픽 남자 마라톤 2연패에 성공했다. 2위는 2시간09분58초에 달린 아브비 나게예(32·네덜란드)가 차지했고 3위는 2시간10분00초를 기록한 바시르 아브디(32·벨기에)가 차지했다.



케냐 출신 마라토너 오주한은 2018년 9월 한국 국적을

케냐 출신 한국 오주한 선수



케냐의 킵초게 선수

얻었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다. 오주한은 10km 지점까지 선두권에 자리했으나 15km 지점 앞에서 허벅지 통증을 느껴 기권하고 말았다.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 귀화를 도운 고(故) 오창석 마라톤 국가대표 코치는 5월 5일 세상을 떠났다. 4월까지 케냐에서 오주한과 함께 훈련하던 오창석 코치는 오주한이 올림픽에서 뛰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참조:광야의 소리 7/8월호 부고 (전 뉴멕시코 한인회 부회장) 오창석 감독) ‘한국인 아버지’를 잃은 오주한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지만, 40분 정도만 뛰고서 레이스를 포기했다. 오창석 코치의 지도를 계속 받았더라면 동메달은 딸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의 심종섭 선수는 2시간20분36초에 완주하며 49위에 올랐다.

2020년 하계 올림픽 메달 집계

| 순위 | 국가 | 금 | 은 | 동 | 합계 |
|----|-----------------|----|----|----|-----|
| 1 | 미국 (USA) | 39 | 41 | 33 | 113 |
| 2 | 중국 (CHN) | 38 | 32 | 18 | 88 |
| 3 | 일본 (JPN) | 27 | 14 | 17 | 58 |
| 4 | 영국 (GBR) | 22 | 21 | 22 | 65 |
| 5 | 러시아올림픽위원회 (ROC) | 20 | 28 | 23 | 71 |
| 6 | 오스트레일리아 (AUS) | 17 | 7 | 22 | 46 |
| 7 | 네덜란드 (NED) | 10 | 12 | 14 | 36 |
| 8 | 프랑스 (FRA) | 10 | 12 | 11 | 33 |
| 9 | 독일 (GER) | 10 | 11 | 16 | 37 |
| 10 | 이탈리아 (ITA) | 10 | 10 | 20 | 40 |
| 16 | 대한민국 (KOR) | 6 | 4 | 10 | 20 |

시간 소개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에 아이들과 같이 알버커키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많은 안식과 위안을 얻었던 진세희입니다.

알버커키를 떠난 지가 벌써 7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때 목사님과 교우님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 마음에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들 어찌 지내시는지요?

한국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이 혼란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태풍이 가라앉고 더 깊은 조화와 질서가 자리 잡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 책이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순간이 내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문턱에 한 번이라도 서게 되면 '살아있음'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느 날 차가 폐차가 될 정도의 큰 차 사고를 겪고, 죽음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느끼게 되었고 언젠든 지금 나의 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니, '나는

진세희
작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깨닫고 느낀 점들을 기록해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타인과 상황을 끊임없이 판단 분별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 지어내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 올라오는 생각 감정들과 하나가 되어 뒹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 이대로의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진실임도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 쫓겨서 나 자신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감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항상 마음 깊은 곳의 평화와 고요 속에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성탄축하 음악회에서 '베들레헴의 아기' 칸타타를 함께 불렀던 진세희 집사(오른쪽 끝)

COVER STORY

9/10월호의 표지 그림 박향옥 집사와 인터뷰

(Q1) 박향옥(Olivia Park) 집사님께서 멋진 ‘달밤의 두마리의 새’ 동양화를 보내주셔서 광야의 소리 9/10월호 표지가 멋지게 장식되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가위 추석이 9월 21일이지요? 9월호 표지에 아주 잘 맞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림에 취미를 갖게 된 것은 언제였나요? 화가로서의 본인 소개부탁 드립니다.



달밤의 두마리의 새

(A1) 어느해의 한가위 추석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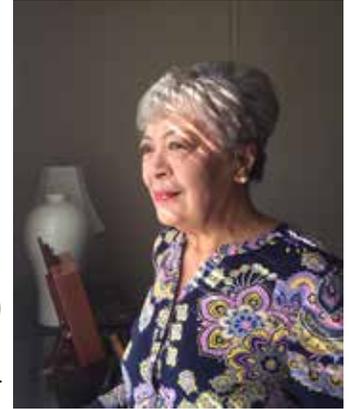
밤, 유난히 밝고 둥근달이 떠있었고 그때 이름모를 새 두마리가 고공 비행 하는것을 보고, 문득 멀리 두고온 고향의 추석날 달밤이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그려 본 것입니다.

여고시절 내내 미술부 활동으로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미술대회에 출품하면서 꿈을 키웠고, 유능한 화백들로부터 개인지도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3년정도 미술을 가르친 경력도 있지만 결혼과 육아로 그림에 대한 모든 것을 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붓을 잡을거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며 살아 왔습니다.

(Q2) 직장 생활하신 얘기, 손녀 얘기, 가족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A2) 세월이 많이 흘러 갔습니다. 직장생활을 US Army 에서 Civilian 으로 일하면서, 은퇴 5년을 앞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WPAA(Washington Professional Artist Association) 회원(Member)이 되었고, 동양화 부문에서 소속당이라는 “호(號)”도 받았습니다.

은퇴후 이곳 큰아들 곁으로 오게 되었고, 어느정도



박향옥(Olivia Park)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만 할때 Covid가 시작되어 집에만 갇혀 있게 되고 뉴멕시코의 좋은 풍경도 못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녀들도 훌쩍 커버려 숙녀들이 되었고, 큰손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두손녀들도 대학생이 되었네요,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 고맙기까지 합니다, 특히 자부에게 오랫동안의 인내와 노력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우(Michael)-
한은영(지혜, 지은, 지수)-NM
한중우(Danny)-
한소정(Jonathan, Madison, Ryan)-VA-
gov. contract



구름속에 솟은 풍경

한세희(Sara)- IL-(state gov employee.)
아이들이 모두 다 제각기 다른주에 살아서 자주 못보지만,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Q3) 축복을 많이 받으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드님 한승우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시고 한은영 며느님도 전도사로 청년부를 지도하시고 큰 손녀 지혜양은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가족이십니다. Covid도 속히 사라져서 집사님께서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좋은 풍경화 그림을 많이 그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3) 저의 그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편집부)

한인사회 소식

한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박재훈 목사 별세

한국의 교회음악과 어린이 동요 작곡가로 너무나 잘 알려진 박재훈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지난 8월2일 캐나다 토론토 미시사가 트릴리움 병원에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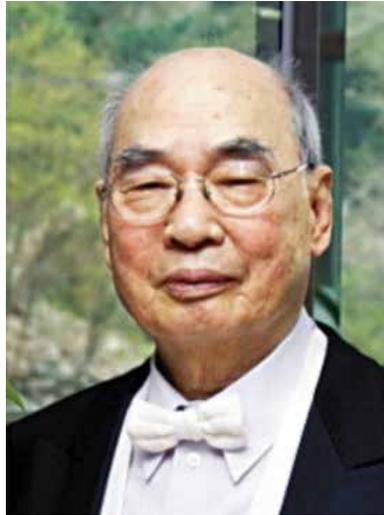
어린이 동요로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시냇물은 졸졸졸’, ‘펄펄 눈이 옵니다’, ‘어머님의 은혜’ 등 150여곡의 국민 동요를 작곡했으며 찬송가는 어린이를 위한 찬양곡을 포함해서 800여곡 이상을 작곡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책에는 박재훈 작곡의 찬송곡이 9곡이나 들어있다. ‘어서 돌아오오(527)’,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 ‘눈을 들어 하늘 보라(515)’,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592)’ 등은 그중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송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Hymnal(1990)에도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를 영어로 ‘Mountains Are All Aglow’, ‘어서 돌아오오’는 ‘Come Back Quickly to the Lord’로 두곡이 번역 수록되어 있어서 미국 교인도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다.

고인은 1922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평양 요한학교, 도쿄 제국고등음악학교, 미국 웨스트민스터대 합창대학 등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아주사 퍼시픽대학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복 당시 평안남도 강서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한양대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1972년 국내 최초 창작 종교 오페라 ‘에스더’를 선보였다. 이듬해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1979년 캐나다로 건너간 그는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토론토 큰빛장로교회를 개척했다.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오페라 ‘손양원’을 2012년 서울에서 초연해 누적 10만 관객 이상을 기록하며 2013년 제6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창작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오페라 ‘유관순’에 이어 3.1운동을 주제로 40년에 걸쳐 만든 ‘함성 1919’는 3.1절 100주년 즈음해 2019년 KBS홀에서 공연했다.

그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독립운동을 오페라로 만들다 세상을 떠났다. 2011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이신 임현수 목사는 박재훈 목사를 추도하는 글에서 “목사님은 한국 교회 음악계의 큰 별”이었다고 회고했다. 다음은 임현수의 목사의 추도문 「아! 아! 박재훈 목사님」 일부이다.

“큰 별이신 목사님은 작은 별들도 수없이 거느리셨습니다. 동요라는 예쁜 별들, 합창곡이라는 아름다운 별들, 여성 중창곡이라는 청순한 별들, 찬송가라는 거룩한 별들, 그리고 오페라라는 별무리를 거느리셨습니다.

6.25 전쟁 후에 선명회 합창단을 만들어 미주에 한국을 알렸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지휘하시면서 한경직 목사님과 동역하셨고, 교수로서 서울대, 한양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제자들을 키우셨고, 대광고등학교 음악 교사이기도 하셨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의 문이 열린 후에 러시아 찬송가를 만들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에 보급해 주셨습니다.

인생 말년에 큰빛교회를 개척하셨으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 7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섬겨 주셨던 겸손한 목회자이셨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모세와 바울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평양 요한 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숲속의 매미가 노래를’,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흰구름 뭉게뭉게’, ‘송이송이 눈꽃송이’ 등 어린이 동요 150곡을 작곡해서 전국의 어린아이들이 일본 동요를 버리고 우리말 동요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을 작곡하여 수많은 교회당에서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부고 유정남

(1938-2021)

주제곡을 작곡하셔서 수만 개 교회학교 아이들이 목청 높여 불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동요를 부르고 찬송하던 그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요를 작곡했던 꿈 많은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현재 99세의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처럼 장수하게 하시면서 한국 음악의 원로로, 한국 동요의 대부로,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한 찬송가 작곡가 및 오페라 작곡가로 지난 100년 교회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등의 찬송가 800곡을 남기셨고, 어린이 찬송가, 러시아 찬송가, ‘유관순’, ‘에스더’, ‘손양원’ 등의 오페라와 수많은 합창곡, 중창곡, 동요를 남겨 주셨습니다.

36년을 지켜본 박재훈 목사님은 소년같이 마음이 맑은 분이시고, 36년 동안 단 한 번도 후임자인 저와 갈등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품어 주셨고, 예수님처럼 관용하며 참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자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사명의 길을 완주하신 박재훈 목사님을 영광의 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큰 별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거목이 뽑힌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목사님을 추모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알버커키에 사는 아드님택으로 이사오셔서 생활해 오신 유용기 장로님의 부인되시는 유정남 권사님께서 지난 8월9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시카고에서 치르신다고 합니다. 아래의 글은 가족이신 아드님이 보내주신 부고입니다.

Jung Nam Yu, age 83, of Albuquerque, New Mexico passed away on Monday, August 9, 2021. Jung was born June 23, 1938. Jung Nam was the beloved wife of Yong Ki Yu for 61



years; loving mother of David (Gigi) Yu, Lisa (Jay) Kim, and Christina Yu; cherished grandmother to Elijah, Sammy, Naomi, Andrew (Helen), Brian (Michelle), Michael; and fond great-grandmother to Tyler, Ethan, Lyla, and Krista.

유정남 권사님은 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관대 하셨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주위 분들을 먼저 섬기셨고 ... 기도와 자선 활동을 통해 몸담은 교회와 지역 사회를 돌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한없이 자상하신 할머니, 증조 할머니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롤모델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싶은 마음은 이루 말할수 없지만 이제 유권사님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저희 모두 위로를 받습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칼럼

39주년 창립 기념예배에 초대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올해 9월 12일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교회 창립기념일은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념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회복되고 있는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교회가 100% 오픈하게 되면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주일 풍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아침 9시부터 교회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에게 정성껏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를 여는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원들은 강단에서 마이크를 조율하고 악기들을 맞춥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예배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고 컴퓨터로 그날 부를 찬양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미리 온 아이들은 베이비시터와 함께 바깥 놀이터를 오가면서 즐겁게 뛰놀지요.

9시 45분이 되면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미 본당에서 시작된 찬양팀의 노래 소리가 온 교회 안에 힘차게 울려 퍼지지요. 그래서 영어 예배실에서는 문을 살짝 닫아놓습니다. 영어 예배는 다같이 일어나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에도 다같이 일어나서 CCM 찬양과 함께 축도로 끝을 맺습니다. 영어예배 설교는 주로 담임 목사인 제가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일은 평신도 설교자로 봉사하시는 Sam Choy 장로님께서 하시지요.

10시에는 중보기도 모임이 105호실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날 드러지는 주일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이 질병과 연약함에서 회복되고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본당 입구에서 예배 위원들은 주보를 나누어주며 또한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곳을 씻어내고 소독합니다.

10시 30분정도가 되면 본당에서는 찬양팀의 연습이 끝나고 은혜로운 찬양이 방송으로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교우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이어 유튜브 방송을 위해 카메라가 켜지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주차장 앞쪽은 미리 오신 분들에 의해 짝 차 있고 이어 들어오는 차들은 주차장 뒤쪽을 분주하게 채웁니다.

11시가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각자 교실로 들어가 교사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활동을 합니다. 본당에서는 찬양팀의 힘찬 찬양과 더불어 본 예배가 예배 순서에 따라 시작되고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은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예전처럼 교우들이 친교실로 모여듭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받아가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친교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선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요. 각 테이블에 앉은 교우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의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고 단절되었던 서로의 관계가 친교 식사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고 회복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다른 교실에서 모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지요. 청년들은 예전처럼 자기들만의 식탁에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할 말도 많기 때문이겠지요.

최근 입교식이 잦아졌습니다. 입교식은 알버커키로 새로 이사 온 교우들이 정식으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되는 예식이지요. 그만큼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청년들이 찬양팀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회가 더욱 젊고 활동적이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종종 주일 대면예배를 드리냐고 묻는 전화를 받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직접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예배에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칼럼

마라스무스 병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내가 자원봉사자로 고아원(보육원)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였으니까 아마도 1959년경쯤 이었으리라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선 이상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는 것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아원에서 잘 먹지 못해서 그렇겠지--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마라스무스 (marasmus)’ 라는 병 증세였습니다.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명인데, 이 병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접촉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이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적인 유교 문화에서, 그리고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놀랍게도 ‘안아주기’ ‘쓰다듬어 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놀아주기’ 등등이란 것입니다. 요컨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매일 매일 평범한 생활에서 늘 하는 사랑의 Skin-ship 만이 치료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야의 연구로 일생을 바친 Dr. Harry Harlow와 Dr. Rene Spitz는

- 1) 사람이 접촉을 느끼는 신경 세포의 수용체들로 가득한 부분이 피부라는 것
- 2) 가장 무거운 감각 기관인 피부의 ‘접촉 결핍’이 무서운 결과를 자아낸다는 것
- 3)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피부 접촉을 통해 신체, 뇌, 마음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고, 이 욕구는 음식을 원하는 생리적 욕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Skin-ship’이 부족하면

- 1) 전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와 신체, 뇌, 마음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 2) 잘 먹을 수도, 활동할 수도 없어서, 우울증, 불감증 등에 시달리게 되다가

3) 성인이 되어도 사회적 관계, 이성적 관계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고아원 뒷산에 혼자 올라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냉함을 아느냐?’ 이었습니다. 영어 찬송가로서는 한층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for a little bit of love?’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냉냉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같이 식구들과 함께 대화하며 관심과 격려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부모에게까지 버림받고 무시당하다가, 고아원에 와서 고귀한 생명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며 혼자서 눈물짓곤 하였었지요.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찾고 사랑하셨다고 증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확실히 안 후에야 비로소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또 사랑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 본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를 받아 본 자만이 남을 신뢰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 과 ‘사랑받는 것’ 보다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무지하게 하여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외식하는 종교인들만 만들어 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죽어가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봉사로 표현될 수 없는 것 이기 때문 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다른 두 계명이 아닙니다. 똑같이 한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태도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이 말씀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는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 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주며, 나의 할 일을 다시 부여잡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영적인 마라스무스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 영적 고아들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습니다. 도처에서 발생하는 슬픈 일들의 대부분이 이 증세에서 파생되는 것임을 보며, 참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을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냉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Amen!

이재호 교우 고별인사

이재호 교우께서 은퇴하시면서 오크라호마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Amarillo 한인회장 직을 이곳에 사시는 동안도 봉사 해오셨는데 오크라호마에 가서도 사회봉사를 더 할것 이라는 포부를 갖고 가셨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온 인사말씀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편집부)



이재호, 이지숙 내외의 인사

잠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환영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신 덕에 이년간 좋은시간 보내고 갑니다. 저희는 이달부로 퇴직하고 8월 19일부로 자녀들과 좀더 가까운곳 Guthrie, OK 로 이사합니다.

친구따라 강남가듯 따라와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와 몇몇분의 조화에 이끌려 신앙을 배워보고자 주일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코비드라는 시련속에 믿음의 수업이 흔들렸고, 먹고사는 일이 대중을 접하는 일이란 핑계로 아쉽게도 지난 몇달도 쉬었습니다.

나바호 선교에 참석을 허락해주신 황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참으로 좋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부르기에 너무 많은 분들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수있게해준 친구들 문상귀/이영란 집사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감사하라는 교훈은 제여생에 가장 도움이되는 교훈일겁니다. 친구와 심한 말다툼을해도 이처럼 마음 터놓고 싸울수있는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미안과 용서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좋은거라 믿습니다.

텍사스에서 배운 텍사스 투 스텝과 여기서 배운 감사하는 마음은 저의 여생에 참된 교훈이며 길잡이가 될것 입니다.

짧게 쓴다면서 길고 지루한 소설을 쓴걸 이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교회 모든분들 주님의 영광을 받아 늘 건강하고 화목한 나날들 되시길 빌며

이재호 인사드렸습니다.

수필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간호사들을 비롯한 보건 위생 전문가들은 즉시 제일선에 뛰어들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던 때였다. 그들의 직업 의식은 9.11테러에 대응한 소방수나 경찰의 그것에 견주어 손색이 없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뉴욕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절박한 싸움에 간호사들이 밤낮을 잇고 몰두했다.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도 병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내습에 대비하여 시간을 다투지 않는 모든 수술을 중지하고 병원과 외래환자 진료실을 마련했다.

그 해 4월 중순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보건 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여러 명의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뒤 감염되어 사망했고, 그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었다. 아직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안도 강구되지 않은데다가 개인 보호 장비마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COVID-19이 유행병으로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는 전에 없던 간판이 거리에 나붙기 시작했다. 보건 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요원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필수 요원들에게 표하는 감사의 말과 함께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필수 요원이란 우리가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꼭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이다. 먹거리를 생산, 가공, 운반하는 사람들이나 식품점 종사자들 그리고 대중 교통의 운전자들로, 바로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없이 많은 일을 해낸 동료 시민들이다.

공기나 물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도 우리는 흔히 그 중요성을 잊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듯이 사람은 또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가도 잊고 산다. 아는 사람은 물론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인 그들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모른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가정부는 자기의 일이 갑작스레 아주 중요한 일이 된 동시에 위험한 일이 되었다고 말한다. “병원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일하는 대가로 받는 수표를 과연 은행에 예금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당에, 목적이나 열정만 가지고 일하려 갈 때면 두려움을 느낀다.” 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미국에서만 5천5백만 명 이상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4월에는 되도록이면 집에 머무르라는 지침이 전국에 떨어졌다. 그 시점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집 밖으로 나가 업무를 수행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선택 사항일 수 없었으며, 변변한 개인 보호 장구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할 때 일선에서 일한 사람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인적인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걱정하면서 일했고,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다.

유행병이 선포되자 한동안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다. 반찬거리 등 먹을 것도 문제이었지만, 특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화장지나 급작스럽게 필요성이 증가한 손 소독제가 동이 나는 바람에 구매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게에서는 사재기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기도 했다. 적은 임금에 위험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사망감 하나로 일하러 다닌 노동자들 덕에 사재기가 오래 가지는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8년에 대한 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고, 1963년에 그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으며, 1994년에는 날짜를 5월 1일로 다시 제정했다. 그 날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일반 기업이 쉬는 날이어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과는 달리 달력에 빨간색 표시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노동절은 1894년에 제정되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보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한 법은 한참 뒤인 1938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 날의 취지가 왜곡되기도 하고, 일반의 무관심으로 그저 하루 쉬는 날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인간의 공동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가 상업·금융업·운수업·통신업·관광업·보육업·요식업 등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보았다. 2020년에는 온 세계가 전쟁 상태에 있는 것과 유사한 위기에 처했다. 마치 총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지뢰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초래한 변화 중에 두드러진 변화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위기가 미국인들을 필수 분야 종사자들과 그들의 고귀한 노고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질병과 싸운 동료 시민들 중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져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고통을 적게 받기를 간절히 빈다.

Jinok Hur 0H69285/CA

장수시대!!

**암·치매·중병·장기요양등이 걱정되시나요?
실속있게 꼭 필요한 보장까지 꼼꼼히!
가족과 나를 위한 생명보험
선택 아닌 필수!**



상담은 바로 지금! 408.210.6972

인컴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사람
다양한 만남과
경험을 통한 인생공부,
인맥 넓이기

평생
근로를 걱정하지
않는 평생직업

**보험 전문가가
좋은 이유**

보험
나와 이웃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을때의 보험

시간
누군가에 의해
장래의 시간이 매년
나만의 스케줄 관리

비전
초보자도 파이낸스
필드에 도전할 수 있는
증명된 시스템

'허진옥 보험'

**의미 있는 일,
영향력 있는 미래를
꿈꾸시나요?**

지금 도전하세요!

허진옥의 에이지

🏠 건강보험
📄 학자금 준비
❤️ 생명보험
🏠 은퇴 플랜
📄 IRA 401K Roll Over

언어 능력이 수학개념 발달에 큰 영향

영·유아와 초등생 자녀를 위한 탐색



계영희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영락교회 집사

신생아도 수학적 능력이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임신하면 태내 아기의 ‘태명’을 짓고, 아기의 태명을 부르며 동화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태내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언어교육의 시작이라면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수학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20세기 서구 현대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 인지발달심리학자 피아제(Piaget, 1896~1980)는 영아는 만 2세를 전후하여 표상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구조가 발달해야 내적인 사고가 가능하므로, 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단계에서 단순히 입으로만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하기와 빼기와 같이 논리적 조작이 필요한 연산은 유아기에 도입해서는 안 되고 초등학교 입학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제의 이러한 이론에 맞서는 연구 결과가 1980년대부터 발표되었습니다.

1980년 스타키와 쿠퍼는 4~5개월 된 영아가 물체 2개와 3개를 구별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뒤이어 앤텔과 키팅은 신생아 대상 실험에서 역시 2개와 3개를 구별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인간이 수량을 구별하는 능력은 선천적 능력임이 판명된 것이지요. 2000년대 초에는 돌이 지난 영아를 대상으로 더욱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2~14개월 된 영아는 ‘많음과 적음, 같음과 다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고, 1살 반에서 2살 정도의 영아는 3~4개의 수량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지녔음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아기의 수 세기 능력은 자녀의 수학 성적으로 연결된다

국내 유아교육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영아들은 2세가 되면 고유 수단어를 ‘하나, 둘, 셋, 넷’까지 센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 대부분 보게 되는 현상이지요. 아이에게 “몇 살” 하고 물으면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펼치면서 “세 살”이라고 답하는 시기이지요. 3~4세경에는 열까지, 5세경에는 스물까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漢字)의 수단어는 2세에 1을, 3~4세에 10~14까지, 5세경에는 49까지 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들의 경우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 수단어와 일(1), 이(2), 삼(3)과 같은 한자 수단어를 익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아제는 유아의 무의미한 수 세기는 단순한 수의 나열이지 수의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최근 주장되는 학설은 유아기의 수 세기 능력은 향후 수학능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아기를 지나 유아가 되면 수학 개념이 발달하는데 이 시기는 언어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수학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많다, 적다, 빠르다, 느리다, 같다, 짧다” 등이지요. 수세기 능력은 물론이고 수학적 개념의 발달은 언어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정서지능 ⇒ 공간지능 ⇒ 언어지능의 순으로 발달

뇌 연구 학자들 보고에 따르면, 2~4세 유아들은 정서지능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5~8세 경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공간을 주관하는 ‘우뇌’로 분화하는데, 우뇌는 4세부터 좌뇌는 7세부터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뇌가 먼저 발달하고, 언어능력과 수학적 능력이 그 후에 발달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녀의 우뇌에 이미지가 많이 저장되도록 유모차를 태우거나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기에 겪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의 정서는 인지발달을 저해하고, 즐거움과 기쁨, 행복감은 창의성을 증진하고 지능발달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 선생님과 친구 등 많은 인적 네트워크 속에서 즐겁게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야 유아와 초등생의 지능이 정서와 더불어 발달하게 됩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신나는 놀이,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는 미술활동, 다양한 멜로디가 어우러지는 음악 등과 함께하는 수학교육이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정답이 하나’인 과목으로 생각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학교 ‘정답이 없는 과목’으로 인식합니다. 수학 시험도 정확성보다는 창의성을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교육선진국들의 다양한 수학교육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사고력을 높이는 미국

미국 초등생의 수학 교과서는 스토리텔링이 주류를 이룹니다. 쇼핑, 여행, 취미활동 등 일상의 이야기들을 문단으로 제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사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초등 3년까지는 읽기를 강조하므로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고, 초등 4년부터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토리텔링을 초등 수학 교과서에 도입했다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중고(二重苦)를 준다고 교육과정이 바뀐 전례가 있지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수학’ 을 강조하는 영국

영국은 유치원과 초등 2년까지 숫자와 덧셈, 뺄셈, 도형을 주로 배웁니다. 특히 도형은 바깥놀이를

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사물을 찾으며 스스로 움직이고 답을 찾는 과정을 훈련합니다. 초등 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을 배우지만 연산연습이나 공식암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게임을 활용한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연산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대부분의 영국인은 ‘생각하는 수학’이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독일

독일의 수학교육은 쉽게 계산하는 요령이나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방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다가 마지막에 간편한 법을 설명해줍니다. 자신의 계산법을 찾게 하는 것이지요. 100% 주관식 시험문제를 채점할 때 교사는 정답보다 풀이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수학교육 방법에 대한 독일 학부모들의 신뢰는 강하다고 합니다.

실험과 놀이로 흥미롭게 공부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흥미를 키워야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수학 수업에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실험과 놀이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가령, 비율을 배울 때는 레몬 원액에 물을 희석하면서 레몬주스를 만들어보니까 학생들은 흥미롭게 개념을 익히고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와 학부모 모두 수학 공식의 암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와 대조적입니다.

교육선진국들의 수학교육에 대한 가치 추구하고 수업방식이 이처럼 다양한 것은 역사 속에서 체득한 민족성과 집단 무의식이 각기 다르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성과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 방법을 모색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야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세대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이 글은 *영락교회*에서 발간하는 “만남”지 7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필자의 전제 허락에 감사드립니다. (편집부)

수필

호렘으로 가는 길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나이에 걸맞는 걸까? 아니 얼토당토치도 않은 불한당 같은 생각일까? 말 잘 만드는 재담꾼들의 분류를 보고 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웃었는데 누가 뭐라고 했나 금새 힐죽 한다.

20대가 화장하면 화장, 30대가 화장하면 분장, 40대가 하면 변장, 50대가 하면 위장, 60대가 화장하면 포장, 7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란다. 80대는 아예 언급도 없다. 아마도 80대는 감히 이런 분류층에 함부로 편승시키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온 세월에 부대끼느라 작아져 보이지도 않기 때문일까?

말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역설하면서도 실상은 포장 이 더 선점을 따 잡는 시대, 포장이 콘텐츠를 선점하는 시대에 언감생심(焉敢生心) 뭔가 사는 듯 싶게 살겠노라는 이 대책 없는 가물가물 세대들의 황당한 절기에 아뵘썩! 빠질세라 나도 한 춤 들곤 한다.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심장이 쿵 쿵 뛰는 한, 밥만으론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한번 사는 듯 싶게 살아 보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 이 황당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운단 말일까?

하루 꼭 세끼가 아니라 한 끼를 줄여서라도 진작에 화끈하게 시도해 보았어야 했을 일들, should have + pp 라고나 할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박증과 함께, 또 듣자 하니 모든 정보가 구글에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니 아직도 과연 짱! 하고 해 뜰 날 있겠구나 싶어 새벽잠 설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다.

뭐 그러나 그런 류의 절기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생 만가지 해답서인 성경을 평생 의지하며 믿음의 확실한 결국을 이미 본 듯 살면서도 급변하는 경쟁 통

속에서 쉽 없이 일하지 않으면 죄의식조차 느끼며, 그 숨 가쁜 시대를 넘어서지 못했던 가물가물 세대에게, 또는 성서적 전통을 지키느라 반복되는 고정된 삶을 사는 어떤 이(?)들에게도 넉히 한 페이지는 채울 수 있는 공통된 소재였던 것만은 틀림없었구나 싶다.

와중에 뉴욕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의 세상 읽기가 그럴듯한 관심거리 기사로 등장했었다. 그중,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열정과 끈기, 호기심 (curiosity)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험산 사막 같은 세상을 백마 탄 기사처럼 살아낼 수 있느냐, 죽지 못해 사느냐가 나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랬다. 그가 말하는 살만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양의 동기가 내 안에 자리잡혀 있는지? 열정이니, 끈기니, 호기심 같은 것이 과연 내게도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나도 그저 남들의 열정에, 가깝게는 남편의 열정에 비슷하게 빌붙어 온 것이었던가 싶어 가슴이 저만큼 멍해진다.

형편에 따라 어떤 이는 터무니 안 닿는 흥부네 살림 같아서, 또 어떤 이는 나름대로 대의명분 있는 수고로 세상에 살다 간 사연들이 죽적으로 남겨지곤 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살던 시대를 조명해 보며 그것들을 거창하게는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 삶이 어땠던지 간에 그 살았던 시대를 반영하는 그 시대의 주역들이다. 경중을 따질 것 없이 다 자기들의 배역을 감당하느라 수고한 주역들인 것이다. 민족과 나라의 전환기에, 아니 온 생애 전부를 온전히 바침으로 살았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방관하거나 방황하다가 끝난 인생은 또 얼마나 많은가. 결국 그 삶에 하나님이 주재였느냐 그것이 이슈인 것이다.

성경 출 3: 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등용되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리 버릇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부터 갈대 상자에 실려 강물에 띄워진 인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남다른 험산 굴곡을 거쳤던 모세. 그가 살아온 기록은 과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이요 인생임에 토 달 수 없는 대 파노라마다. 자기 소유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던 그가 하나님의 대업에 등용되는 장면은 또 어떤가! 전혀 하나님의 주장이었고 또 전혀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았더라는 기록에 눈이 번쩍! 답이 거기 있었다.

온갖 것 다 해 보았어도 허탈하기만 했던 이 가물가물 세대들의 황당한 소원 ‘한번 사는 것 같이 살아보았으면’ 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살아오는 동안, 그 꺼지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을 지난적이 분명 있었으리라 싶다. 그러나 그 불이 왜 꺼지지 않고 타는지 아무런 질문 없이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아니,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진정 알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그 겸손이 결국 엄청난 감사로 메시지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닌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다시 왔을 때에 하셨던 말씀으로 수백 번도 더 들어왔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이 거룩한 땅에서는 지금의 모습으론 결코 갈등과 고생뿐 이라를 시사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며 나 자신을 정리하곤 해 왔다.

머리가 희어지도록 온갖 것 다 해 보았을지라도 결국 ‘사는 듯 싶게 살아 보고 싶다’를 소원하게 될 줄을 이미 아셨던가? 그 소원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준비시키셨던 것인가! 그렇다! 그 소원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겸손! 그동안 땀 흘려 힘들여 길러 온 내 소견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군말 없이 신발을 벗는 절대 겸손! 그것이였다. 그렇다! 사는 듯 싶게 사는 삶이란 오직 절대자에 대한 단순한 ‘절대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이었거늘! 전혀 달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밤새 소란하던 빗소리가 잦아드니 작은 물방울들이 반짝반짝 찬란한 새벽이다. 간간히 들렸다 멈췄다 하는 풀벌레 소리들이며, 아무도 자주 찾지 않는 개울가에

힘껏 피어난 작은 파랭이 꽃이 우주 같다.

지난밤 불어닥친 세찬 비바람에 부러지고 꺾인 고춧대들을 정리해 세우느라 해가 중천에 온 줄도 모르고 씨름했노라시며 풋고추 한 줌, 애호박 한 덩이 건네시고 가시는 노 권사님의 별정계 익은 얼굴은 개선장군 같다.

팬데믹으로 제한된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느냐? 네 형과 동생은 또 어떻게 지내느냐 묻는 할미에게 앓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자의 대답 “Oh, grandma, they all are happy because of me!” 한다. 60만 대군을 이끄는 모세 같다.

일 년간의 커리큘럼 매스터 플랜을 다 마치고 개학을 기다리며 그동안 짬짬이 소일해온 재즈(Jazz)로 모처럼의 낭만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딸냄이가 엄청 커 보인다.

매주 똑같은 회중을 상대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단해 보인다. 특별히 장애아 교실에서 재롱부리듯 하시는 선생님 앞에서는 콩알처럼 작아진다. 폭풍우 쏟아지는 칠혹같이 어두운 날엔 거친 비를 피하게 해 주는 우산이 되어 주고,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겠노라 주접떠는 태양족보단 빛 고운 노을 되어 조용히 사라지는 저녁해가 되리라 던 어떤 원로의 말이 고장 난 레코드처럼 돌고 또 돌아도 내버려 둔다. 그대로 편안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세상! 모르는 것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자꾸 많아지니, 아- 더 살아 봄 직하다.

비록 들판에서 쪽잠으로 온 밤을 지낼지라도 틀림없이 새벽이슬로 오시는 대주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는 단 한 가지 소원을 하는 양치기처럼, 흠~뻑! 물~ 찌 새벽 같은 절대 겸손! 그것을 살 수만 있다면... 답은 바로 그것이지 싶다.

그것이 그렇게 소원하던 그 ‘사는 듯 싶게 살아 보았으면’ 의 답이요 내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던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대업에 등용되었던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는 길이리라. 그는 사는 듯 싶게 살았더라.

영어이야기 16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자동차의 gas값이 gallon당 \$3을 넘은지도 꽤 되었습니다. 필자가 New Mexico로 은퇴하기전 Chicago근교의 Naperville에서 살던 2006년, 당시 OPEC의 무자비한(?) 가격인상으로 \$3을 넘었다가, \$2이하로 내려갔던 gas값이 다시금 올라가 신경이 쓰이는데, 식료품값은 잘 몰라도, 길을 오가다 눈에 들어오는것이 주유소의 기름값이라, 피부에 금방 와닿고, 자동차는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 더욱 기름값에 예민합니다. 일종우편(First Class Mail)도 8월29일 부터는 현행 55¢에서 58¢로 오릅니다. 필자가 미국에 1976년 1월에 San Francisco로 왔는데, 당시 우표값은 9¢, gas값은 약 56¢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우표값이나 기름값은 약 6배가 오른셈입니다. 반면에 Big Mac햄버거는 약 10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만 더디게 올라갈뿐입니다.

주유소인 Gas station의 gas는 gasoline의 준말이고, 가정집에 있는 gas range의 gas는 natural gas입니다. Gasoline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주유소에 보면, 10% Ethanol Added (10%의 에타놀이 섞인 개솔린)라고 쓰인것을 볼수있는데, Ethanol은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주로 만드는 Biofuel인데, 개솔린에 10% 섞었을때 연소가 잘됩니다. 원유인 석유(石油)는 한자에서 보듯이 돌에서 나온 기름이란 뜻인데, 영어의 Petroleum을 번역한것이라 생각됩니다. Petroleum의 Petra는 Latin어에서 온말로 돌(stone), 바위(rock)를 뜻하며, oleum은 기름(oil)을 뜻합니다. 원유는 raw oil이라 하지않고, raw or rough의 뜻을 가진 Latin어 crudus에 어원을 둔 crude oil로 표현합니다. Spain어로 crude oil은 petroleo crudo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름은 oil로 표현하기에, cooking oil(식용유), vegetable oil (식물성기름), sesame oil(참기름), oil painting (유화) 등에서 보듯이 oil은 액체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Grease

는 산업용기계나 연장의 윤활제(lubricant)로 주로 사용되는 기름으로 oil보다 농도가 진하며 딱딱하지않은 고체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이라고도 부르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등에 붙어있는 지방은 fat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fat은 동물에서(animal fat), oil은 식물에서 (vegetable oil) 얻으며, 실온에서 oil은 액체상태, fat은 고체상태로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고기에 붙어있는 fat은 높은온도로 가열하면 액체상태인 기름으로 되며 요리할때 사방으로 튕니다. 가정용 윤활제는 보통 oil을 사용하므로 재봉틀기름은 sewing machine oil 또는 그냥 lubricant(윤활유)라 부를수 있고, 대개 한방울씩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기에 drip oil이라 표현할수 있습니다. Grease는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므로 Heating Boiler에 사용되며, oil같은 액체상태가 아니므로 빨리 회전하는 부품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자동차엔진은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oil을 사용하기에 Engine oil, Transmission oil 이라 합니다. 게다가 grease보다 oil이 붓기 쉽고 사용온도 영역이 넓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Engine oil대신에 Grease를 사용하면 oil보다 농도가 훨씬 진하기때문에 저항이 심해지고, 기름이 사방에 튕지도 모릅니다. 물컹하게 되어있는 상태가 Grease입니다. Oil이나 Grease 둘다 윤활제(Lubricant)로 사용되지만, 차고문(Garage door)이나 녹슨곳에 뿌리는 WD-40는 Lubricant라고 부릅니다. Engine Oil Change하는 업소인 Jiffy Lube의 Lube는 구어체로 윤활유(Lubricating Oil or Lubricant)란 뜻이며, Jiffy는 잠시, 순간, 짧은시간을 나타내는 구어체로, "I'll be there in a jiffy."(나 곧바로 갈거야). 기름진 음식을 greasy food라고 하고, 기름에 뒤범벅이된 중국요리를 보고 greasy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석유를 뜻하는 Petroleum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을 뜻하는 Petra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이름에

Peter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여자이름은 Petra입니다.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Peter는 어원이 돌(stone, rock)을 뜻하는 Petros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돌쇠”란 이름이었고, 돌을 뜻하는 석(石)씨도 있습니다. 영어이름에도 Stone이란 성이 있으며, 아인슈타인도 글자를 보면 Einstein, 즉 “한개의 돌”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Einstein은 일석(一石)이라 할수있겠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이름에 돌(stone)을 사용한것이 흥미롭습니다. 유태계독일인 이름에 “Stein(돌)”이 들어간것이 많은데, 유태인들이 보석을 많이 다루다보니, 돌보다는 보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Goldstein, Finkelstein(sparkling stone; diamond) 등이 있습니다. 영어의 Stone도 보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Albuquerque의 Unser Road에서 Atrisco Dr로 빠지면 Petroglyph National Monument중 하나인 Boca Negra Canyon에 쉽게 갈수있는데, 그리 높지않은 꼭대기인 Mesa Point에 올라가면, Albuquerque시가를 한눈에 내려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새긴 형상들을 볼수있습니다. Petroglyph는 바위에 새긴 형상(image)을 뜻합니다. Highway 40번을 타고 서쪽으로 가면, Gallup을



지나고 Arizona에 들어서 잠시 달리면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가 나옵니다. 이곳에선 오랜세월에 돌같이 굳은 나무를 볼수있습니다. 유기물이 돌같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Petrify라 하듯이 돌과 관계된 단어에는 어김없이, 돌 바위를 나타내는 Petros에 어원을 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릴적 학교 자연시간에 배웠듯이 석유, 석탄, 자연가스등은 오래전에 식물이나 나무들이 죽은후 퇴적되어 생성된 물질입니다. 원유인 Petroleum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Gasoline, Naphtha(나프타), Kerosene(등유), Lubricating oil (윤활유),

Asphalt(아스팔트)등을 만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Naphtha를 주원료로 만듭니다. Gasoline을 연소시켜 움직이는 자동차 대신에 전기자동차가 다음세대의 주자가 될것 같은데,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는 Electric car 또는 Electric Vehicle(EV)이라 합니다. 전기차는 선두주자인 Tesla뿐 아니라 현대의 Kona를 비롯하여 여러 자동차회사에서 만듭니다. 전기가 동력원이기 때문에 Battery의 용량과 충전시간(Charging time)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주유소처럼 어디에서나 충전할수있는 Charging station이나 carport가 절대부족입니다. 멀리 여행하지않고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면 집에서 충전하여도 충분합니다. 연료를 연소하여 배출하는 system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이 매끄럽고 조용하며, Engine oil change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내부 부품도 적어 자동차 유지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현행 기름값과 충전하는데 드는 전기값을 비교해도 전기값이 대체로 쌉니다. 환경오염을 본다면 전기차는 환경오염이 없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우선 Battery의 처분이 환경오염에 좋지않고,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위해 기름이나 석탄등 화석연료(fossil fuel)를 사용하는 발전소(power plant)는 더욱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하게 됩니다. 주머니 받거리 하면서 좋은쪽으로 타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와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or autonomous vehicle)도 도로에서 다닙니다. 자율주행차는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탁월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운전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어도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마음이 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행중 computer에 고장이 생겨 오작동 할수도 있으며, 온갖 hacker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자동차에 저장된 software에 악성code를 무선으로 심어놓을수도 있고, 어떤 순간엔 인간의 판단이 옳을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날경우,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를 만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물릴지 확실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Engineer는 항상 최악의 경우(worst case)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Pandemic이 수구러지지 않는군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선교 / 간증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조성현 목사의 간증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신 조성현 목사님께서 지난 8월 8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로 주신 말씀을 녹취하여 요약한 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시편 150:6)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켈럽에서 13마일 북쪽에서 나바호 인디언 선교 사역을 하다가 텍사스로 다시 돌아가서 남침례교 해외 선교국에의 파송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21개월 사역하던 중 미군 철수와 때를 같이해서 선교본부의 귀국 명령을 받아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탈레반에 의해 쫓겨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던 얘기를 해 드리고 오늘의 본문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이 저의 사역에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얘기해 드리는 간증으로 설교를 대신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 갈 때에는 몸의 체중이 238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19개월 후에는 저의 체중이 185파운드까지 빠져 버렸습니다. 살빼기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체중이 줄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략 3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이 바뀐 탓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곳에도 쇠고기, 닭고기가 있기는 한데 이상한 냄새가 나고 질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도 있으나 우리가 여기서 먹는 그런 쌀이 아닌 이상한 냄새나는 쌀이었습니다. 식생활의 어려움이 체중감소 원인의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긴장 스트레스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수시로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곤 하니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집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던져 산모 20명과 신생아 다수가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Physical Therapy 에서 침을 놓는 한 의사로 일을 하게 되어 침대 6개를 배정받고 무료로 침술을 제공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출퇴근을 하는데 경찰초소 앞을 지나게 됩니다. 초소앞을 지날 때 오토바이라도 지나가게 되면 폭탄 테러가 폭탄을 던지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긴장하곤 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탈레반 테러리스트가 여학생 80명이 탄 버스를 폭파시켜서 대참사가 생겼습니다. 사람 목숨이 아주 싸구려가 되어서 100불이면 청부 살인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만일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의 시민의 이슬람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탈레반이 안다면 가만있지를 못하는 그들입니다. 선교사는 추방이나 감옥에 가는 정도를 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곧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경험한 어려움 중에는 영적 전쟁의 체험도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침을 놓으려고 할 때 손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환자가 기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머리속이 환해 지면서 아무런 말을 못 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무슬림의 세력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마다 주님께서 더 내게 강한 힘을 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한의사로 침을 놓는 일을 함으로 의료봉사를 한 이유는 선교를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에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것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나라의 종교법에 의하면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과 대화 할 때 “나는

미국에서 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OK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묻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면 종교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믿으세요” 라고 말 하면 종교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고발을 한다면 정부에서는 저를 추방할 수도 있고 만일 그 사람이 탈레반에게 고발을 한다면 저는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 하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내게 말을 걸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결론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을 걸어오게 할 수 있을까? 를 고심했습니다. 얼굴이 하얀 외국인은 모두 기독교인으로 생각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동료선교사의 말을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던 중 외국인이라든가 백인계 외국인이 아닌 동양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즉 일본, 중국, 한국인은 불교 신자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 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한국인이며 그리스찬 이라고 했더니 그 곳 사람은 놀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를 믿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주몽”, “대장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은 옛날 불교문화의 나라였으므로 한국인은 모두가 불교 신자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한국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먼저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외출할 때는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갔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 할 때도, 사우나 할 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 중에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젊은이들의 99%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이나 이슬람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함으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커서 외국인이면 우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십자가 목걸이 한 것을 보면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비로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크리닉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다가 여러 번 치료를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나가서 기도해 주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우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생전에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를 받게 됐다고 감격해서 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다고 위로해주었습니다. 만일 이 환자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신고한다면 저는 곧 추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힘, 동력을 준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150편6절의 말씀이 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제게 힘을 주었는데 하박국 3:17-1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은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어느 날 이곳 사람들을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자의 찬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슬림 신앙을 가진 이사람들의 찬양도 원하신다는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 씨를 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안해는 그곳 여성을 위해서 특히 산동네에 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약 5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산동네 가가호호를 다니며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산동네로 올라가는 입구에 여자중학교가 있었는데 하루는 탈레반이 이곳에 폭탄을 터뜨려 80여 명의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카불은 이 나라의 수도이며 칼레반의 세력이 약한 곳인데도 이런 테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자는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된다! 춤과 노래는 안된다! 여자가 job은 갖는 것 안된다. 여자는 밖에 나갈때 눈만 빼고 온 머리를 덮어서 가리고 반드시 남편이나 아들이나 가족인 남자를 대동하여야만 다닐 수 있다. 여학교에 폭탄 터뜨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집에만

CVI Laser 창립자 한유학 박사를 기억하며

알버커키에서 고출력 레이저 광학부품을 만드는 CVI Laser 회사를 창업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시킨 한유학 (87)박사가 지난 2021년 7월 9일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한유학 박사는 필자가 UNM에 유학생으로 와서 전기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공부하고 있던 1970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고는 본인이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Menaul에 있는 Holiday Inn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 가라지만한 세든 공간이었습니다. 장비라고는 진공챔버하나가 전 재산 장비였습니다. 유리나 광학렌즈에 특수 코팅을 입혀서 고출력 레이저 빔이 통과해도 부서지지 않는 광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산디아연구소를 위시하여 레이저 기술개발하는 연구소나 대학 또는 산업체에 광학 부품을 공급하려는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제품을 개발 하는데에 전자장비를



고 한유학 박사 Kentucky Wesleyan College, Yu Hak Hahn 과학센터 건물



만들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 하다면서 여름 방학 기간에 도와줄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파트타임으로 두 세번 일을 해드렸으나 나중에 알게 된것은 원래 목적이 도움이 필요한것도 맞기는 하나 가족까지 거느리고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을 도와 주려는 마음에서 일꺼리를 제게 준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알버커키에는 UNM 한국학생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극히 적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성탄절 또는 연말 년초 기간이 되면 한국유학생을 초대해주었고 부인인 한광순씨가 치는 피아노 옆에 둘러서서 한국가곡을 불렀던 일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 피아노가 30년 뒤에 어느 교회 본당으로 옮겨져서 15년동안이나 예배시간에 쓰임받게 될줄은 아무도 상상못한 일입니다. 한 박사가 퇴직하고 동부로 이사 가시면서 아드님에게 집을 물려 주었고 2003년 저희교회가 지금의 교회 건물을 신축해서 피아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아드님 데이빗은 그 피아노를 저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 도네이션 해 준 것 입니다. 새 피아노를 최근에 구입할때 까지 약 15년간 매년 수리하고 튜닝해가며 사용했던 정 들었던 피아노가 바로 그덕으로 부터 기증받은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다시 한박사 비즈니스 얘기로 돌아 갑니다. 가라지에서 시작한 CVI Laser 회사는 2-3년이 안되어 센트랄 동쪽

끝 지역에 공장을 지었고 직원도 늘어났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 한국, 영국에도 지사를 세우고 국내에서는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지사를 세워 확장을 거듭하며 레이저 광학 제품은 전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CVI회사는 뉴멕시코에서 중소기업 하청업체상을 수상했으며

< 26페이지에서 계속 아프가니스탄 선교 >

전국적으로는 National Small Business Contractor Award상을 수상했고 이로 인해 한박사는 백악관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한유학 박사는 경북고등학교 시절 6.25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신 서울대학 철학과 교수였던 한치진 박사가 이북으로 납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잃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켄터키 웨슬리언 대학의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어 고등학생으로 도미했습니다. 켄터키 웨슬리언 대학에서 수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버지니아 대학교로 가서 물리학 석사, 펜실바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4일 Kentucky Wesleyan College (KWC)에서 열린 제153회 졸업식에서 58년도 졸업생인 한유학 박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 했습니다. 이자리에 한박사는 참석을 못했으나 한박사를 표창하는 이 행사를 설명한 웹사이트의 글을 보면 그가 KWC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던 시절 여름방학기간에는 정규직으로 대학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가며 고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졸업후 박사학위 취득, 로체스터에 있는 Bausch & Lomb에서 일한 경력을 소개한뒤 뉴멕시코 알버커키로 가서 CVI Laser 회사를 창업한 사실과 과학자이면서 기업가로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대학 이사회에서 2004년 그를 기리기 위해 대학에 신축예정인 과학센터를 “Yu Hak Hahn Center for the Sciences”로 명명할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2005년 한유학 박사는 100 만불을 건축기금으로 헌금했으며 뿐만 아니라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 할 수 있도록 장학 재단도 그의 가족 이름으로 설립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감리교단의 시초가 된 존 웨슬리의 이름으로 세워진 연합감리교단과 관련깊은 이 학교에서 몇년전에 연합감리교회 전국 여선교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때 참석했던 저희 교회의 (고)오영 권사님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캠퍼스를 걸어가든중 과학센터 건물에 새겨진 ‘Yu Hak Hahn’ 한국인의 이름, 그것도 알버커키에 살았던 한국인의 이름이 큼직하게 현관위에 부처진 건물을 보고 깜작 놀랐고, 한유학

있어야 한다.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탈레반이 전국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서방국가는 이 나라를 지원하지 않을것 입니다. 탈레반이 통치를 하게 된다면 암흑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저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까닭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아무리 암흑의 세계가 되더라도 이들을 어느 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터에 저 사람들을 남겨놓고 나 혼자 도망 나왔다는 자책 비슷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호흡 있는 만물들의 하나님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호흡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호흡있는자 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꽃과 나무와 모든 동물과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덴동산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께서 호흡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를 꿈꾸면서 상대가 친구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사의 도네이션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신것이 기억납니다. 한유학 박사의 모교가 웨슬리언 대학이어서 그곳에 도네이션 한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편을 잃은 한광순 여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삶을 보람있게 살고 가신 고 한유학박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장의사에서 올린 Obituary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서 이글을 끝맺으려 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타고난 보살핌과 너그러운 정신과 끊임없는 웃음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유족으로는 아내 한광순, 자녀 데이빗과 크리스틴, 손자 세나, 루크, 테아, 형제 유갑, 유봉, 여동생 프리실라 경숙, 영숙,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유친보다 먼저 생을 마감 했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일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Zoom) 10:00 am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 | | | |
|--|---|---|---|--|
| 알버커키 Albuquerque |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 식당 Korean Restaurant | 식품점 Korean Grocery | 주택융자 Loan Officer |
| 건축/페인트 Painting |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
| 공인회계사 CPA |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중재서비스 |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 교회 Church |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 치과 Dental Clinic |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 변호사 Law Firm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 부동산 Realtors |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 태권도 TaeKwonDo |
|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 |
| 단요가 Dahn Yoga |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 | |
| 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 세탁소 Dry Cleaners |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 | |
| 리커스토어 Liquo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 |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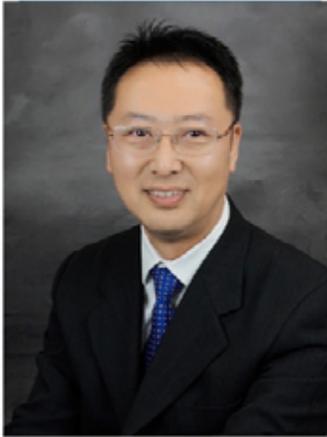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 | | | | |
|--|--|--|--|--|
| <p>한의사 Acupuncture</p> | <p>교회 Church</p> | <p>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p> | <p>리커스토어 Liquors</p> | <p>식품 Korean Grocery</p> |
| <p>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p> |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 <p>리커스토어 Liquors</p> |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
| <p>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p> |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 <p>리커스토어 Liquors</p> | <p>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p>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p> | <p>치과 Dentist</p> <p>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p> |
| <p>화원/원예 Nursery</p> <p>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p> | <p>교회 Church</p> | <p>화밍톤 Farmington</p> |
| <p>호텔 Hotel</p> <p>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p> |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미장원 Hair Salon</p> <p>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p> | <p>치과 Dental Clinic</p> <p>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Clovis</p>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p>라스베가스 Las Vegas</p> |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p> | <p>산타페 Santa Fe</p> | <p>교회 Church</p> <p>식당 Restaurant</p> <p>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p> |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
|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 <p>교회 Church</p> |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 <p>교회 Church</p> |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 <p>리오란초 Rio Rancho</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p> | <p>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p> <p>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p>교회 Church</p>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1년 9/10월호
발행일 : 2021.9.4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E-mail
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택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